

## [아버지학교 10주년] 세미나

2005/ 페이지수: 5

### \* 세미나 목록

- 한국사회와 남성성
-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 기독교 전통에서 본 아버지 상
- 두란노 아버지학교 10년, 그 성과와 평가
- 여성학자가 보는 아버지 학교 운동의 의미
- 부쉬넬이 주장한 기독교적 양육의 상관관계

### 한국사회와 남성성

이현송 교수(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가부장제 이념에 근거한 남성성에서 벗어나 경제·가사·양육 분담하는 동반자 되어야

△남성 생계부양자 역할과 가부장제도=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다.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교육받는다. 남성이 바깥의 경쟁사회에서 성공할 경우 집안 내에서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이 된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부양의 의무를 적절히 다하지 못하였을 때 남성과 그 가족이 겪게 되는 갈등은 엄청나서 남성 자신과 그 및 그의 가족의 파탄까지 초래하게 된다.

△아버지의 역할= 생계부양자 역할이 남성성의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좋은 아버지란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켜야한다. 그러나 가족생활에 거의 기여하는 것이 없더라도 생계부양자 역할만을 충실히 하면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서구사회의 경우 부부간에 갈등이 지속되거나 자식에게 관심을 쏟지 않는 아버지라면, 오히려 어머니가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키우거나 새로운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선택으로 밝혀졌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생물학적인 지위로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만 아버지로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부장 모델 대 동반자 모델 비교= 한국의 남성은 가부장제도가 부여하는 생계부양자 모델과 열악한 직장의 환경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남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는 더더욱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가부장제 이념에 근거한 남성성의 규정에서 벗어나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고, 집안일도 분담하며 자

녀의 양육이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서로 상의하여 처리하는 동반자 모델로 변화하며, 직장 생활이 가족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장상태 교수 (경민대학)

###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특수상황·연령·분야별 맞춤교육 준비해야

△역사와 현황=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즉 가정의 붕괴, 도덕성의 타락, 청소년 문제 등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부재에 기인한다고 보고, 성경적 아버지로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횡수가 거듭될수록 교회에서 군, 교도소 등 사회로 뺀어 나가는 남성회복운동으로 발전되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교육내용= 아버지학교 교육은 5주 과정이며 주제별 강의와 나눔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 ‘아버지의 영향력’을 주제로 좋은 영향력은 대를 이어 계승해야겠지만 나쁜 영향력은 우리 대에서 끊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친다.

두 번째 주 ‘아버지의 남성’에서는 왕, 전사, 스승, 친구로서 모습을 균형있게 갖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강의를 한다.

세 번째 주 ‘아버지의 사명’에서는 남성으로 최고의 신분은 아버지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고 아버지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친다.

네 번째 주 주제는 ‘아버지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알아본다. 마지막 주 ‘아버지와 가정’을 주제로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정이며 아버지가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는 사회로 변화된다는 것을 배운다.

△제언=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특징은 첫째 강력한 성령운동이다. 둘째, 삶의 실천운동이다. 셋째 평신도 운동이다. 아버지학교가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때 더욱 수준 높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 상황과 각 분야에 적합한 교육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아버지학교의 경우 지원자그룹이 2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편차가 크므로 세대 차이를 감안한 강의 내용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학교가 날로 부흥 발전하여 한국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

## 기독교 전통에서 본 아버지 상

이정숙 교수(헷볼트리니티신대)

### 하나님 이미지의 확대는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 재형성에 영향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와 아버지= 기독교 전통에서 ‘아버지’상은 쉽게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많은 학자들은 이성적, 지배자, 명령자, 엄격함 등 남성적 이미지가 하나님의 본질적 이미지를 제한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지적하고 돌보심과 양육, 사랑, 함께함의 속성 등 모성적 이미지를 부각해 함께 다뤄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나님 이미지의 확대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아버지들이 자신들이 아버지로서 역할과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모델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와 ‘아버지’ 역할과 의미= 초기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문화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해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로마제국에서 남성들의 권위는 매우 컸지만 남성들은 창녀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고자 했고, 선정성이 강한 연극문화를 즐겼고 검투사 경기나 맹수를 이용한 범죄자 처형 등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제공될 정도였다. 이러한 반기독교적 사회문화 환경을 탄식한 기독교인들은 각종 경기나 연극 관람을 금했다. 또한 일부일처제, 결혼관계에 충실(간음 금지), 자녀유기 금지, 자녀 양육 등을 교육시켰다.

△개신교 개혁자들이 이해한 아버지의 역할= 역사학자 스티븐 오즈먼트(Steven Ozment)는 결혼제도야말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이론과 실천을 가장 잘 조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루터는 자신의 결혼을 통하여 여성에 대하여, 자녀양육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어조와 내용으로 말했다. 또한 루터는 가정을 ‘그리스도의 학교’로 보고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교양교육을 가정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두란노 아버지학교 10년, 그 성과와 평가

백승현 교수 (경희대)

### 위기의 가정 회복에 기여... 희망과 기대감 주는 사회운동 되어야

△연혁과 실적=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기독단체인 두란노서원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캐치 프레이즈아래 처음 개설했다. 1995년 1기 때 65명이 수료해 매년 개설 회수와 장소, 수료자 수가 배증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11월 12일 본부 68기를 개설함으로써 국내, 해외 및 특수 아버지학교 개설을 총망라한 개설 회수로 1천회를 돌파했다.

△조직 구성= 국제운동본부, 한국본부, 특수사역본부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 조직이 전적으로 해당 지역 수료자들이 아버지학교 사역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하는 열정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점이 특이하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잠재성과 가능성=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등 현재의 사회적 흐름을 존중하면서, 아버지들이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점에서 개혁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개인 대상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추진방법에 있어 평화적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특한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의 존속 기간이 인류의 지구상 존재기간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주체세력의 역량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점에서 아버지학교 운동은 그 운동의 성격상 사회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적 속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사회운동으로서 성장·확산돼 나가기 위해 이 운동을 범사회적 운동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주체세력들의 주도적, 창조적 역량이 필요하다. 아버지학교와 같은 원초적 차원의 사회운동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이 사회의 왜곡된 모습과 현상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 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확신의 수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될 때, 바로 아버지학교는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이어가는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여성학자가 보는 아버지 학교 운동의 의미

함인희 교수(이화여대)

### **아버지 위상 위기의식 고조... 현실적이고 균형잡힌 아버지상 정립 필요**

△ 현대사회 ‘아버지’의 재발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아버지의 재발견’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대중문화 속에서 권위적이고 위선적이기까지 한 전통적 아버지상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해 장기화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을 경험하게 되는 가정들이 증가함으로써 아버지의 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아버지에 대한 재발견이 진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역할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역할 내지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 현대사회 아버지의 딜레마=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는 첫 번째, 가족 생계담당자로서의 특권과 부담을 갖게 되면서 과거에는 아버지라는 지위 자체에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었으나 이제는 아버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무능한 아버지로 낙인찍힐 수도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둘러싼 문화(culture)의 변화 속도가 행동(conduct)의 변화 속도간의

괴리는 현대사회 아버지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 번째 일 우선 이데올로기와 가족역할 기대의 충돌이 생겼다.

네 번째는 전통가족에 대한 향수와 새로운 역할 모델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 새로운 아버지상의 정립을 위한 제언= 첫째, 부부가 동시에 부모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련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들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아버지 역할 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아버지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균형 잡힌, 현실적인 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쉬넬이 주장한 기독교적 양육의 상관관계

김도일 교수(장신대)

### **부쉬넬의 정신, 아버지학교의 교육론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부쉬넬의 사상과 이론의 핵심= 현대 종교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쉬넬은 29세에 헌신, 목사가 되었다. 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사건은 갓난아기였던 딸이 죽는 것을 목격한 사건과 자신의 외아들이 네 살에 죽는 것을 목격한 사건이었다. 특히 외아들의 죽음을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실험적 종교(experimental religion) 경험으로 여길 만큼 큰 충격이었다. 1859년에 은퇴한 그는 17년간 저술활동에 전념했다.

그는 19세기 미국에 팽배했던 회심 일변도의 경향에 영향을 받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당연히 행해야 할 가정교육을 등한시했던 상황을 개탄하면서 가정교육의 부재를 고발했다. 또한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의 최우선되는 장은 당연히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교회가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버지학교와 부쉬넬의 비교= 인간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 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둘 다 인간이해에 대한 부분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자녀는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면서, 훈계도 겸하여 양육해야 하는 대상이다. 또한 아버지학교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가정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면, 부쉬넬의 견해 또한 그와 상이하지 않다. 부쉬넬이 살던 시대는 19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가정의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일정한 분별연령에 이르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은연 중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여러 의미에서 살펴볼 때 아버지학교의 이론과 부쉬넬의 가정에 관한 이론이 유사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버지학교의 정신과 부쉬넬의 정신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버지학교의 교육론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